

[심층] >> 4면
난감한 우리학교의 쓰레기 처리

[심층] >> 7면
사교육 택하는 학생들

[사회] >> 8면
심해지는 백신 양극화 현상

[인물] >> 12면
김현우 SBS 앵커를 만나다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20대 남녀의 엇갈린 외침



4·7 보궐선거 결과의 20대 남녀 표심 차이가 화제에 올랐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20대 전반에 자리 잡은 젠더 갈등을 지목했다. 우리학교 재학생이 바라보는 청년층의 표심에 대해 알아보자.

▶5면에서 계속

글·사진 김민주 기자 01minju@hufs.ac.kr

우리학교, 개편된 학생 핵심역량 통합관리시스템 선보여

지난달 21일, 우리학교는 '학생 핵심역량 통합관리시스템 HUFSAbility(이하 흡스에빌리티)'를 새롭게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교육 목표와 인재상에 맞는 새로운 교육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됐다. 학교 측은 개편을 통해 우리학교의 6대 핵심역량인 △대인 관계 △세계시민 △의사소통 △자기주도적 학습 △지식·정보·기술 활용 △창의·혁신을 중심으로 학생의 학습역량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개편된 흡스에빌리티는 학생의 핵심역량을 진단한 후 부족한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추천한다. 이후 이를 연계해 학생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도 △진로목표 △통합상담 △채용정보 등의 메뉴를 통해 학생의 역량 향상을 돕는다.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된 흡스에빌리티 점수를 적립할 수 있다. 우리학교 교육과정혁신팀은 “누적된

점수는 추후 진행될 비교과 페스티벌과 같은 학내 행사에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신현(경상·국금 17) 씨는 “개편된 흡스에빌리티를 사용해보니 부족한 역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상담과 특강을 통해 내게 맞는 채용정보를 찾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달 △외국계 기업 채용 상담회 △진로 집단상담 △해외취업 특강 등의 행사를 통해 학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실제로 흡스에빌리티는 지난달 2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외국계 투자기업 채용 설명회를 실시했다.

한편 우리학교는 흡스에빌리티 개편에 맞춰 우리학교 교육혁신원 산하에 교육성과관리팀을 신설했다. 교육성과관리팀은 학생의 교과 교육과정 성과를 분석하고 핵심역량 성장을 측정해 학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익 기자 01hyunik@hufs.ac.kr

한국어문화교육원, 한국어 멘토링 봉사단에 위촉장 수여해

지난달 13일, 우리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이하 한문원)에서 한국어 멘토링 봉사단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단체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번 학기 멘토링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며 일대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문원 멘토링에 참여 중인 학생은 8명이다. 멘토로 참여하는 학생은 10주간 총 20시간 이상 멘토링을 진행해야 한다. 봉사수료 후 멘토 학생들에게 한국어문화교육원장 명의의 위촉장과 우리학교 사회봉사센터의 활동 지원 장학금이 지급된다. 김재우 한문원 대리(이하 김 대리)는 “이번 학기 멘토링 봉사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협조해주신 김미자 사회봉사센터 부장님과 박성조 학생지원팀 담당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2019학년도 가을학기에 ‘언어교환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한문원 멘토링은 지난해엔 코로나19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해엔 ‘LCE(Language&Culture Exchange)’란 이름으로 새롭게 실시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우리학교 학부생 멘토와 한문원 연수생 멘티의

문화 및 언어 교류를 통해 학문적 지식과 도덕적 인격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발족됐다. 김 대리는 “한문원에서 연수하고 있는 학생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학부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연수생들에게 우리학교 학부생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학기 멘토링은 이동엽(LD·LD 15) 씨(이하 이 씨)가 한문원에 제안하면서 재개됐다. 이 씨는 “외대사 랑순찰대 활동을 함께 한 외국인 학부생을 통해 그들이 우리나라 학생과의 교류를 희망하던 걸 느꼈다”며 한문원 연수생의 멘토링 수요를 제안 이유로 뽑았다. 또한 “우리학교에 재학하며 동아리를 제외하고 외국인 학생과 직접 소통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한문원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학생과 교류할 수 있게 됐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문원은 오는 여름학기부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멘토 모집 지원 대상자를 늘리는 등 멘토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경주 기자 02giwoo@hufs.ac.kr

2021년 정기시험 안내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측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자격정보 안내 <http://flex.hufs.ac.kr>

1. 2021년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25 ~ 03.03	03.28	04.16	04.30
2회	04.29 ~ 05.05	05.30	06.18	07.02
3회	08.05 ~ 08.11	09.05	09.24	10.08
4회	10.21 ~ 10.27	11.21	12.10	12.24

※ 원·접수 마감시간의 마감시간은 18:00입니다.
※ 고사장, 응시 과목에 따라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LEX 듣기·읽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인증자이며, 말하기, 쓰기는 등록인증자(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인증자입니다.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3. 평가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1개 언어 선택 응시 (동시에 2개 언어 응시 불가)

4. 원서접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접수 가능
<http://license.korcham.net>

5. 응시료 : 듣기·읽기 42,000원, 말하기 70,000원, 쓰기 70,000원

▶ 접수 수수료 : 1,200원
▶ 수험료 환불규정 : 접수 기간 내 100% 환불 접수마감 이후~시험일 5일전 50%환불, 접수 수수료 환불 불가 시험일 4일전 이후 환불 불가

6. 결과발표

▶ 확인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http://license.korcham.net> (문의) 02-2102-3600
▶ 성적유효기간 : 시험일로부터 2년

7. 참고사항

재학생 IBT FLEX(영어, 중국어) 응시 자격 : IBT 시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FLEX 정기시험(해당 언어)에 응시한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사범대학 개편안 이사회 통과해

지난달 9일, 우리학교 사범대학(이하 사범대) 개편안이 이사회 의결 후 교육부에 제출됐다. 주요 내용은 △사범대 소속 학과 입학정원 일괄 30% 감축△사범대 내 외국어교육학부 신설△독일어교육과(이하 독교)·중국어교육과(이하 중교)·프랑스어교육과(이하 프교)를 외국어교육학부 내 전공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해당 안이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다음 해부터 △독교△중교△프교는 외국어교육학부 내 세부 전공으로 변경된다. 감축되는 사범대 정원은 △사범대△KFL학부△LD학부△LT학부를 제외한 서울캠퍼스 30개 학과 및 학부에 한 명씩 분배된다.

이번 구조조정 논의는 지난해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이하 진단)에서 우리학교 사범대가 C등급을 받으며 시작됐다. 진단에서 C등급을 받으면 교원양성 정원의 30%를 감축해야 한다. 이에 지난 1월, 사범대 학생들은 비상 사범대 학생총회에서 △다섯 학과 독립 체제 유지△모든

학과와 동일 비율 인원 감축△학생 대표의 향후 논의 과정 참여 보장을 의결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독일어와 프랑스어 신규 교사 임용이 10여 년간 없었고, 입학정원 30% 감축 시 한 학과 정원이 14명이 돼 단일학과 유지가 어렵단 이유로 △독교△중교△프교의 외국어교육학부 통합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사범대에 재학 중인 A씨는 “사범대가 교사 양성이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만큼 수요가 적은 독교와 프교 정원을 일부 줄일 필요는 있지만 이런 식의 구조조정은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거다”며 “교집합도 없는 세 학과의 통폐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석준 독일어교육과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은 “학교 측이 우리학교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범대 학생은 구성원 동의 없는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을 지적하고 있다. 안도화(사범·한교 18) 사범대 학생회장은 “통폐합을 통해 개선

되는 점이나 차후 대책이 명확하게 제시됐더라면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학교 측에 여러 차례 질문했음에도 명확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사범대 구성원 의견을 무조건 반영해달란 게 아니니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이유만이라도 공유해주길 바란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해당 개편안에 학칙 개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리학교 법인 ‘동원육영회’ 정관 제128조 제2호 및 학교 규정 업무 지침서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평의)가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사범대 구조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안을 대평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회 의결을 받았다. 대평의에서 2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한 것이 심의에 준한단 것이다. 이에 김태영 사범대 학장(이하 김 학장)은 “대평의가 절차적 정당성 미비를 근거로 심의 자체를 거부한 사

안을 심의의결 거쳤다고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평의는 교수회의 의결이 없는 통폐합 안은 안건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입장이다.

한편 사범대 내부에선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학장은 “교수들이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며 성과관리 TF팀을 만들어 매 학기 모든 사범대 교과과정을 분석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A 씨는 “사범대가 문제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6주기 진단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직 수업 분반△사범대 열람실 내 개론서 구비△임용시험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우경주 기자 02gjwoo@hufs.ac.kr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인권연대주간’ 진행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총학생회 ‘온(ON)’(이하 글캠 총학)은 ‘인권연대주간: 조화롭게 어우러질 우리의 이야기 ENSEMBLE’(이하 인권연대주간)을 진행했다. 글캠 총학의 정책연대국이 주관하는 인권연대주간은 교내에 존재하는 △성소수자△장애인△채식주의자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행사다.

첫째 날엔 인권과 채식주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먼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 교수)의 강연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인권감수성’을 기준으로 본 범죄 심리란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선 우리 주변에 일어날만한 범죄 사례와 범죄 심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했다. 오수진(동유럽·형가리

21) 씨는 “이 교수의 질의응답 시간이 정말 유익했다”며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을 상기시켜줬다”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속 사회적 약자를 주목하는 카드뉴스에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처한 △대면 지원 부재△자가격리△정보격차 문제를 알리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글캠 인근 채식 음식점 지도 제작 및 채식주의 레시피 챌린지 등 참여형 행사가 이어졌다.

둘째 날엔 배리어프리(Barrier-Free)를 주제로 △문



▲글캠 총학 인권연대주간 포스터

화생활△건축△스마트응용△응급사△엘리베이터 유무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엘리베이터가 없고 급경사가 있는 건물이 대다수였다. 셋째 날엔 △성소수자△인권 관련 영화△차별금지법에 대한 카드뉴스가 게재됐다. 특히 차별금지법 관련 카드뉴스는 우리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단

체 ‘외행성’의 도움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날엔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의 ‘행동 문화 만들

기’ 강연이 열렸다. 본 강연에선 개인이 가진 서로 다른 사회적 정체성과 이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인권연대주간에 대해 고보경(자연·화학 19) 씨는 “총학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다뤄 의미 있었다”며 “생활 속 인권 연대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주영(바이오·바메공 18) 글캠 총학 정책연대국장은 “인권연대주간은 정책국이 정책연대국으로 개편된 후 처음 진행된 본격적인 인권 연대 업무다”며 “누구나 상황에 따라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기에 학우들이 이번 계기로 사회적 연대에 더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현익 기자 01hyunik@hufs.ac.kr

우리학교 중남미연구소, 저자와의 대화 열어

지난달 19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우리학교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은 ‘저자와의 대화’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환경과 생태 관련 책을 집필한 저자를 초청해 기후 위기 등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을 공유하고 생태 문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9일엔 이상헌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이하 이 교수)가 ‘생태주의의 문제의식과 입장들’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생태주의는 인간과 자연 사이 존재하는 근본적 문제와 더불어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환경위기의 극복에 관한 정치적 입장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생태주의의 쟁점을 △시공간의 재해석△인간의 지위△자연의 한계로 나누며 우리나라에서 생태주의적 사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해 경쟁력이 감소하는 산업을 대응 산업으로 전환해 새로운 기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실천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6일엔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박 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 박 교수는 ‘자연의 권리와 지구를 위한 법, 에콰도르 원주민의 세계관이 미친 영향’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에콰도르의 원주민

문화에서 비롯된 에콰도르 헌법 제7장 제72조는 ‘자연환경이 침해될 경우 그 침해된 자연에 의지해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보상의무와 별도로 자연 자체도 원상회복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이다. 박 교수는 에콰도르 헌법 중 자연의 권리를 지구법학의 측면에서 바라보며 자연과 인간의 상호적 지원을 통한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구법학은 기후 위기 같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접근에서 생겨난 정치 철학이다. 박 교수는 강연을 마치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생태적 경제개발이 인류에게 부여된 가장 큰 과제다”며 공공사업을 통한 실현을 강조했다.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은 “본 행사는 생태주의의 다양한 흐름과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생태주의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자연권의 인식 확장을 강조했다. HK+ 사업단 소속 학생상임 우리학교 스페인어과 교수는 강연을 듣고 “이번 행사가 HK+ 사업단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향후엔 해외 유명 저자도 초청해 우리나라가 생태문명 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보겠다”고 밝혔다.

김현익 기자 01hyunik@hufs.ac.kr

우리학교 일본연구소,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해

지난달 22일, 우리학교 일본연구소(이하 일본연구소)에서 제5회 일본연구소 우수논문상(이하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논문상엔 손범기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부 교수(이하 손 교수)의 ‘일본어의 이중모음에 대하여-이중모음을 규정하는 음성적 기준-’ 논문이 채택됐다. 해당 논문은 현대 일본어에서 최적의 이중모음을 조합을 고찰하고 있다. 기존 연구의 ‘보다 좋은 음절학 가설’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후 분산이론에 기반한 청각적 거리란 음성적 기준을 이중모음으로 규정하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본연구소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이중모음을 연구 대상으로 했던 점에서 독창성이 인정되고 내용이 체계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다”며 우수논문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손 교수는 “△음성△음운△일본어학 개론서 대다수가 일본어 이중모음을 필수로 언급하지만 이중모음으로 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모음조합의 수도 제각각이다”며 “이에 음성적 특징을 바탕으로 그 이유에 대해 연구했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이어 “중견연구자로 넘

어가는 길목에 이런 큰 상을 받은 건 앞으로 좋은 연구로 학계에 기여하란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좋은 연구 성과 낼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손 교수는 이후 대규모 언어자료인 ‘음성 코퍼스’를 토대로 이중모음의 실제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우수논문상은 일본 관련 연구에 종사하는 신진 학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수여하는 학술상이다. 2015년 제정이 결정돼 2016년부터 △일본연구 종사 신진연구자 발굴 및 연구비 지원△일본연구소 도약의 기회△시적 네트워크 확산 도모로 활용되고 있다. 수상 대상자는 당해 연도 우리학교 일본연구소 기관지 ‘일본연구’에 논문을 게재한 박사학위 △과정생△수료생△취득 후 10년 이내의 연구자다. 일본연구소는 “앞으로도 신진연구자들의 새로운 이론에 바탕을 둔 발전적인 연구가 많이 투고돼 일본어학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경주 기자 02gjwoo@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1학년도 후기 석사/박사/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특별전형	2021. 4. 5(월) ~ 4. 9(금)	5. 8(토) 10:00	5. 20 (목) 14:00	5. 24(월) ~ 5. 28(금)
일반전형	2021. 5. 17(월) ~ 5.21(금)	6. 12(토) 10:00	6. 24 (목) 14:00	6. 28(월) ~ 7. 2(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2) **박사** : 국내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나. 일반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

2) **박사** : 국내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모집학과

석사과정 50개 학과, 박사과정 45개 학과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4.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6. 전형방법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

나.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다.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우리학교, 67주년 개교기념일 행사 실시해

지난달 19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개교 67주년 기념식(이하 기념식)이 개최됐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학교 연혁 보고△이사장 기념사△총장 기념사△총동문회장 축사△표창 수여 순으로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해 소규모로 진행됐다.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학과 신설△신입생 통합 모집△학과 및 단과대학 명칭 변경 등 학제개편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를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양캠퍼스 학과 간 통합 개편은 합의를 거쳐 실천돼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해는 △교수△직원△학생이 함께 참여해 차기 총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해다”며 “우리학교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신입 총장을 선출 해주면 새 총장과 합심해 우리학교 발전을 향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기념식에선 우리학교 법인 ‘동원육영회’(이하 동원육영회)가 새로 제정한 동원번역상 시상이 있었다. 동원번역상은 한국문학 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해외 문학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해 번역문학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학교 위상을 높인 교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해 동원번역상은 박우수 우리학교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와 최성은 우리학교 풀란드어과 교수(이하 최 교수)가 수상했다. 김종철 우



▲우리학교 개교 67주년 기념식 (출처: 총괄지원팀)

리학교 이사장은 “번역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통해 우리학교 학문 발전과 위상 확립에 큰 역할을 해준 두 분에게 상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동안 번역한 책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영예로운 상까지 받게 돼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특수외국어 분야에서 꾸준히 번역 작업을 해오고 계신 동문 번역가들과 영광을 함께 하고 싶다”고 전했다. 동원육영회는 앞으

로 3년마다 개교기념일에 동원번역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선 △업적평가 우수교원△우수직원△장기근속△HUFs 강의상 표창도 진행했다. 업적평가 우수교원상은 이성하 ELLT학과 교수와 19명이, 우수직원상은 오상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장 외 24명이 수상했다. 이어 HUFs 강의상은 윤승민 일본어통번역학과 교수 외 19명이 수상했다. 장기근속자는 지난달 20일부터 만 △10년△20년△30년 근속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이번 해 장기근속 교원은 모두 합해 41명이며 장기근속 직원은 22명이다.

우경주 기자 02gjwoo@hufs.ac.kr

서울캠퍼스 도서관 다독상 및 토익·토플 모의시험 성적우수상 시상식 열려

지난달 29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도서관에서 다독상 및 토익·토플 모의시험 성적우수상 시상식이 열렸다. 다독상 시상 취지는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이번 다독상은 우리학교 설캠 소속 학부생을 대상으로 지난 학기 시작일인 9월 1일부터 이번 해 2월 28일까지 최다 대출자 8명을 선정했다. 토익·토플 모의시험 성적 우수상은 우리학교 설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모의시험을 완료한 학생 중 고득점순으로 4명이 수상했다. 이후 두 부문 모두 우수상과 장려상 시상이 이뤄졌다.

이성하 우리학교 설캠 도서관장 겸 ELLT 학과 교수는 수상 축사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책을 많이 읽었다”며 일상에서

의 꾸준한 독서를 격려했다. 다독상 우수상 수상자인 윤지원(경영·경영 16)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다른 활동에 제약이 생겨 자기계발에 집중하기로 결심해 책을 많이 읽게 됐다”며 다독상 수상으로 이어진 게 기쁘단 소감을 밝혔다. 엄기원 우리학교 도서관 정보봉사파트



▲다독상 및 토익·토플 모의시험 성적우수자 시상자 기념 촬영

열람서장은 “다독상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도서관을 친숙하게 여기고 자주 이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 학기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인 다독상과 토익·토플 모의시험 성적우수상 시상식 외에도 다음 학기에 진행하는 교수 지정 서적의 서평을 쓰는 정독상 시상

있다”며 학생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도서관에선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이 현저하게 줄어 이번 해 다독상 시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글캠 도서관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행사인 정보 검색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수연 기자 02shinsoo@hufs.ac.kr

총장선출 관련 학생총투표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단 재선거 실시돼

지난달 6일부터 8일까지 우리학교 양캠퍼스(이하 양캠)에서 비대면으로 실시한 총장선출에 관한 학생총투표(이하 학생총투표)가 최종 가결됐다. 이번 학생총투표의 목적은 총장후보선출규정 개정안에 대한 학생 동의였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는 9,620명의 유권자 중 5,091명이 투표해 52.6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개표 결과 4,983명이 찬성해 50%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글로벌캠퍼스는 7,876명의 유권자 중 4,254명이 투표해 54.01%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50% 이상인 4,181명이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했다. 양캠 모두 가결

요건인 50%의 투표율을 넘긴 것이다.

총장후보선출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양캠 총학생회(이하 양캠 총학) 대표자가 속한 총장후보선출규정 개선위원회에서 △교수△직원△학생 모두가 총장 선출에 참여하도록 변경한 개정안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선출된 교수협의회 집행부는 총장후보선출규정 개정안의 학생 의견 반영에 이의를 제기하며 전체 학생의 50%가 넘는 동의를 요구했다. 이에 양캠 총학은 이번 학생총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이후 김하늘(중국·중외 통 20) 씨는 “이번 학생총투표가 학생의 자치권 향상을

위한 도약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설캠의 경우 학생총투표와 함께 제55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이하 재선거)가 치러졌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등록된 예비후보가 없어 무산됐지만 이번 재선거엔 총학생회 선거본부 ‘외대에게’(이하 외대에게)가 입후보했다. 재선거엔 총 4,475명이 투표해 46.27%의 투표율을 보였다. 외대에게는 그중 4,079표의 찬성표를 받아 당선됐다.

외대에게는 “비대면 선거라 쉽지 않았지만 전하고자 했던 의미는 잘 전달된 것 같다”며 “진심을 알아준 학

우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당선 이후 행보에 대해선 “우선 등록금반환운동본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6월에 청춘비전토크쇼를 준비 중이라 밝혔다. 또한 외대에게는 △수강신청 제도 전면 개선△원격 수업운영위원회 구성 요구△인권 관련 학생 연대 활동에 대한 실무 논의 등의 공약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

김현익 기자 01hyunik@hufs.ac.kr

교내 야간 소음문제 심각해

최근 교내에서 밤 10시 이후 고성방가로 인한 소음 문제가 제기됐다.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학생들이 야간 소음에 불편을 표하는 글이 지난 한 달간 약 30회 게시된 것이다. 설캠의 경우 잔디광장 및 운동장에서, 글캠의 경우 학생들이 지내는 기숙사 부지에서 주로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음식점이 밤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지 않자 학생들은 학교로 모이고 있다. 설캠에 재학 중인 A 씨는 “교내 야간 소음문제로 눈살을 찌푸릴 때가 많았다”며 이에 관한 대책을 촉구했다. 글캠 기숙사에 거주하는 김보경(인문·언어인지 19) 씨는 “10시 이후, 특히 통금 시간에 가까운 밤 12시부터 오전 1시 사이 고성방가로 시끄러울 때가 많아 공부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데 불편했던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학교 측에선 학생 자치의 역할과 학생의 의식 개선을



▲밤 10시 이후 설캠 잔디광장에 학생들이 모여있는 모습

강조했다. 학교가 일방적으로 개입하기보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단 것이다. 김태문 우리학교 설캠 총괄지원팀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설캠 총학생회와 이 문제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학생지원처에 문의를 한 상태다”고 전했다. 최태경 우리학교 글캠

학사운영팀 팀장은 “기숙사 사생 생활수칙에 고성방가에 대한 조항이 있다”며 사생들의 생활수칙 숙지가 필요한 부분임을 역설했다. 글캠 기숙사 사생수칙 4항에 따르면 기숙사에서 난동 행위를 일으키거나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생에게 퇴사 및 영구 입사 불가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음주 등으로 고성방가를 일으킨 학생은 기숙사 사생회를 중심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며 해당 문제에 학생 자치 측의 제재가 있음을 알렸다.

신수연 기자 02shinsoo@hufs.ac.kr

우리학교 언어연구소 상반기 콜로키엄 열려

지난달 6일, 우리학교 언어연구소의 이번 해 상반기 콜로키엄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콜로키엄에선 김희동 우리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이하 김 교수)가 ‘사전학습 언어모델의 발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해당 강연에선 학습데이터의 양과 언어모델의 관계를 기반으로 사전학습 언어모델을 분석했다. 또한 미래 인공지능 관련 연구 동향을 참고해 향후 자연언어처리의 연구 진행 방향과 언어학자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교수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로 △음성인식△자연언어처리△화상인식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룬 이후 사전학습언어모델(BERT)이 발표돼 자연어 처리 분야에 기술적 변혁이 일어나게 됐다”며 사전학습언어모델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언어연구소 콜로키엄이 공학과 인문학이 융합하는 계

기를 계속해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언어연구소는 1969년 4월 20일 우리학교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부설기관으로 설립됐다. 언어연구소에선 인간 언어의 보편적 특성에 대해 연구한다. 또한 2000년도부터 연 2회 학술을 발간하는 등 언어 간 비교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의 협력△국제언어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선발전△월례 연구 발표회 및 강독회△학술대회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달 14일엔 언어연구소는 뇌과학과 언어 처리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수연 기자 02shinsoo@hufs.ac.kr

한계에 다다른 폐기물 처리, 작은 실천이 필요할 때

지난 3월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가 자체 쓰레기 매립지인 ‘인천 에코랜드’를 202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2025년부터 지자체별 매립장과 소각장에서 관내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 한편 우리학교는 유동인구

가 줄어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했지만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슷하게 유지됐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상황은 원활하지 않다. △우리사회에서 겪고 있는 폐기물 문제△우리학교 상황△폐기물 절감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 사회의 폐기물 처리 상황은

지난 3월 인천시의회가 자체 쓰레기 매립지인 ‘인천 에코랜드’ 부지 매입비의 예산 투입을 확정 지었다. 인천시는 지난해 ‘자체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계획’을 발표해 2025년 수도권 매립지로 서의 역할 종료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30년간 누적된 악취 및 소음에 대한 주민 피해를 해소하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해 1월 환경부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공모했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무산됐다. 2025년 이후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사회 폐기물 발생량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의 44만 6,102톤에서 2019년 49만 7,238톤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지난해와 이번 해 전국 폐기물 발생량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증가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전국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로 구성돼 있다.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과 달리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이 가능하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5만 7,961톤으로 2018년 5만 6,035톤에 비해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상반기에 비해 11.2% 증가해 5,438톤을 차지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폐기물은 처리 방식에 △매립 △소각 △재활용이 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에 가연성은 소각하며 불연성은 매립한다. 그러나 이런 처리 과정은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다. 폐기물 매립 시 △대기 △지하수 △토양 오염이 발생하며 소각의 경우엔 유해물질을 생성해 대기 및 토양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홍수열 환경 전문가(이하 홍 전문가)는 “폐기물을 소각하면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매립하면 썩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원인이 된다”며 폐기물 처리 방식의 환경오염을 강조하며 재활용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은 배출량에 비해 재활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다. 환경부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대표적인 제품인 페트병도 2018년 국내에서 생산된 약 30만 톤의 페트병 중 30% 수준만이 재활용됐다.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돼 대다수가 재활용되지 못한 것이다. 강신호 대안에너지기술 연구소장은 “페트병만 봐도 분리수거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고 분리기준이 모호하다”며 세분화된 분리수거를 통한 적극적인 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범처호른 분리수거함 내 쓰레기 모습 (출처: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 쓰레기 배출과 처리 모두 난감한 우리학교

동대문구청이 조사한 ‘동대문구 폐기물 발생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량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보다 5%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같은 기간 40% 감소한 것을 보면 생활폐기물의 양의 규모를 체감할 수 있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에선 지난해 197톤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했다. 이는 학생들의 등교 횟수가 줄어든 점을 감안해도 전년도의 약 60%로 여전히 많은 양이다.

현재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돼 학생들의 학교 시설 이용량은 현저히 줄었다. 그러나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해 기숙사는 부피가 큰 플라스틱 용기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설캠 미화원 A 씨(이하 A 씨)는 “학생들이 재활용품을 일반폐기물로 버려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며 “2차 처리 과정에서 분류하기 힘들다”고 폐기물 처리 상태를 지적했다. 글캠 미화원 B 씨는 “분리수거함에 용기와 음식물을 넣고 버려 악취와 벌레가 생겨 처리하기 힘들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서영(사회·미디어 19) 씨는 “재활용 쓰레기가 오염되면 재활용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학생들이 올바르게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게 세분화된 분리수거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도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관련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 폐기물 절감을 위한 대책은

양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학내 환경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설캠 총학 ‘외대에게’는 “기숙사와 같은 주거공간에서의 폐기물 처리 곤란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행복 증진과 연결된 심각한 문제다”며 기존보다 더욱 용이하게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학내 기숙사 협의체’에서 안전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글캠 총학 ‘온(ON)’은 “우리학교 학생 인식을 위한 캠페인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역시 폐기물 절감 개선을 위해서 캠페인 진행 등을 통해 노력해왔던 입장이다. 그러나 양캠 모두 코로나19로 학교에 학생이 없단 이유를 들며 구체적 진행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폐기물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적 해결과 더불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부터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의 작은 실천이 환경 보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홍 전문가는 “‘3R’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여러 번 사용하며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3R 원칙은 ‘Reduce, Reuse, Recycle’의 약자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잔 의미를 내포한다. 무분별한 소비를 지양하는 태도로 자신이 하는 활동을 성찰하고 3R 원칙 등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도해 볼 때다.

박채빈 기자 02chaebi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야간) 2021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1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1.04.23(금) ~ 05.10(월)	2021.05.28(금) ~ 06.14(월)
고사장 발표	2021.05.20(목) 15:00	2021.06.23(수) 15:00
면접전형	2021.05.22(토) 10:00 예정	2021.06.26(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1.06.04(금) 15:00	2021.07.09(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1.06.07(월) ~ 06.11(금)	2021.07.12(월) ~ 07.16(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공공감사 : 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감사)
나. 외교정보학과(외교안보, 북한)
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
라. 문화언터테이먼트학과(문화언터테이먼트)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진학지원센터 www.jinhak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장학금 (*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 됨)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
- 원우회 임원 장학금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 본 대학원 내 학과간 교과수강(졸업학점의 50% 까지)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

TEL. 02-2173-2428, 2429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1학년도 후기석사학위과정 신입생모집

1. 2021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1.04.26(월) ~ 05.10(월)	2021.05.31(월) ~ 06.14(월)
고사장 발표	2021.05.20(목) 15:00	2021.06.23(수) 15:00
면접전형	2021.05.22(토) 10:00 예정	2021.06.26(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1.06.03(목) 15:00	2021.07.08(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1.06.07(월) ~ 06.11(금)	2021.07.12(월) ~ 07.16(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애학기 자금)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 TESOL 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 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 자격증 취득자)

마. TESOL 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바. 복수학위프로그램(템플대학교), 3+1 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 프로그램(샌디에고, 하와이)

아. 추가학점 이수트랙 신설

(논문·졸업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 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521 ~ 2173 FAX. 02-2173-3358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 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ESOL, Hanya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20대 남녀의 엇갈린 외침

지난달 7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에서 시장 보궐선거(이하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그 결과 서울시장엔 오세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하 오 시장)이, 부산시장엔 박형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하 박 시장)이 당선됐다. 한편 이번 선거에선 성별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20대의 표심 차이가 두드러졌다.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사는 이런 결과의 원인으로 20대 전반에 자리한 젠더 갈등을 지적했다. 이에 우리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특이점과 그에 대한 20대의 생각에 대해 알아보자.

◆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특이점

지난달 실시한 보궐선거 이후 20대 유권자의 표심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KBS△MBC△SBS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의 55.6%가 오 시장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 20대의 과반수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지지한 양상과 정반대의 결과였다. 그러나 20대 유권자의 표심은 성별에 따라 극명하게 나뉘었다. 72.5%의 20대 남성 유권자가 오 시장을 선택했으나, 20대 여성 유권자의 경우 40.9%만이 오 시장의 편에 선 것이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이와 비슷한 격차가 나타났다. 20대 남성 유권자의 63%가 박 시장을 지지한 반면, 20대 여성 유권자의 41.3%만이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토록 성별에 따른 표심 차이가 20% 포인트 이상 극명하게 나타나는 연령대는 전 연령 중 20대가 유일했다. 특히 20대 남성의 높은 보수정당 지지율은 눈에 띄는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20대는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띄는 유권자 집단이었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의 보수정당 지지율은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수정당 지지율에 육박했다. 한편 20대 여성 유권자도 이전과는 다른 투표 양상을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 구도가 건재하다. 그럼에도 서울 20대 여성 유권자의 15.1%는 제3후보에 표를 던졌다. 소수정당·무소속 후보를 지지한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전체 연령대와 성별 그룹을 통틀어 20대 여성이 유일했다.

◆ 우리학교 재학생의 생각은?

외대학보는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20대 표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리학교 재학생 중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남성 유권자 김경문(국제지역·한국 17) 씨△보수정당을 지지하는 남성 유권자 김성식(영어·영어 16) 씨△민주당을 지지하는 여성 유권자 A 씨△민주당을 지지하는 남성 유권자 B 씨△여성의를당을 지지하는 여성 유권자 C 씨가 인터뷰에 응했다. 다음 취재원들의 생각은 20대 전체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외대학보의 방향과도 무관하다.

Q1.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20대 표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씨 (민주당 지지): 전임 시장의 성 추문이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이다. 그렇기에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 채로 선거가 진행됐다. 성별과 관계없이 민주당을 지지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의 표심이 성별에 따라 이토록 크게 차이 날 거라곤 예상치 못했다.
B 씨 (민주당 지지): 민주당의 공감 능력이 국민의힘에 비해 부족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유권자의 간지러운 부분을 잘 긁어준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안건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책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의 편에 섰고, 이에 만족한 유권자의 지지가 보궐선거의 결과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김성식 씨 (보수정당 지지): 부동산값 폭등과 일자리 절벽 등 현 정부의 정책적 무능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20대가 직격탄을 맞아 이 같은 표심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지금의 20대는 과거 고도성장기의 혜택을 누렸던 기득권층과 달리 공동체적 대의에 관심을 가질 만큼 여유 있지 않다. 저성장의 고착화와 계속된 실업으로 인해 20대는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 개혁과 같은 이상주의적 대의를 내세우는 민주당에 표를 던지기 쉽지 않았다.

Q2. 20대 남녀의 표심이 갈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씨 (민주당 지지): 국민의힘에 대한 인식 차이가 표심을 갈랐다고 생각한다. 주변의 여성 친구 중 아무리 민주당에 실망하더라도 국민의힘은 뽑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들도 여럿 존재한다. 그러나 20대 남성은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 20대 여성보다 적다고 느껴진다.
C 씨 (여성의당 지지): 민주당의 몇몇 여성 우대 정책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인해 표심이 갈리지 않았나 추측한다. 그러나 민주당을 페미니즘 정당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여성의 삶을 개선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의 성 추문 사건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가해 사실이 밝혀진 후, 후속 대처도 부족했다. 그럼에도 이전에 민주당이 가진 페미니즘 이미지가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방송 3사 출구조사 (출처: 중앙일보)

김성식 씨 (보수정당 지지): 젠더 이슈와 이념적 성향의 차이가 원인이라고 본다. 민주당의 페미니즘 정책인 여성할당제와 여성우대정책 등은 양성평등으로부터 이탈했다고 느낀다. 이에 상대적으로 남성들, 특히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와 거리가 있는 젊은 세대가 피로감을 느꼈을 것이다. 기성세대 남성에게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부채 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20대 남성에게 페미니즘은 반발의 대상일 뿐이다.
김경문 씨 (국민의힘 지지): 페미니즘 정책으로 인한 혜택 유무 차이라고 생각한다. 성평등 정책의 이득을 보는 여성과 달리 남성은 설 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인식한다.

Q3. 20대 남성의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경문 씨 (국민의힘 지지): 성평등 사회라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결혼 과정에서 집을 마련하는 쪽은 남성인 것 같다. 그렇기에 부동산 가격 폭등을 직격탄으로 느낀 20대 남성이 보수화된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본다. 대부분의 국민이 성평등에 동의하지만, 민주당 정책은 이를 넘어서 한쪽 성별에 치우친 성차별 정책을 표방하는 듯하다. 그렇기에 억눌렸던 20대 남성이 표심으로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B 씨 (민주당 지지): 이를 20대 남성의 보수화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20대 남성 내 압도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그저 현 정부에 대한 반발의 결과라고 본다.

Q4. 20대 여성의 표심이 여러 갈래로 나뉜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A 씨 (민주당 지지): 다수 여성이 페미니즘의 여러 갈래에 따른 다양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최선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았다. 최약을 피하며 차선을 판단하는 기준이 20대 여성의 표심을 갈랐으리라 본다.
C 씨 (여성의당 지지): 보궐선거의 원인이었던 젠더 이슈에 대해 거대 양당에선 명쾌한 해결 방안을 내놓은 후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수정당·무소속 후보 중에선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후보가 존재했다. 사표를 각오하더라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가 혹은 젠더 이슈가 아닌 다른 가치를 우선에 두는가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한다.
김성식 씨 (보수정당 지지): 20대 여성의 40%가 국민의힘을 지지한 이유는 여성우대정책과 관련 없이 20대 전반을 억누르는 현실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소수정당·무소속 후보를 지지한 10% 이상의 여성은 현 정부가 페미니즘 정책을 실패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 청년에게 필요한 정치는?

지난달 12일에 열린 민주당 내 선거 리부 모임에서 일부 의원들은 20대 남성의 지지를 잃은 원인으로 페미니즘을 꼽았다. 민주당이 과도한 페미니즘 정책으로 20대 남성의 공감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민주당이 청년 남성의 결집력을 과소평가했고 여성주의 운동에 전념한 것이 참패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대표는 선거 패배 원인을 페미니즘 탓만으로 돌리는 정치권과 언론의 행태를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젠더 갈등을 부추길수록 청년의 삶 개선 여지는 더욱 줄어들 단 것이다. “성별 가르기를 통해 지지 기반을 결집하려는 정치권의 행태는 누군가를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정당화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인터뷰에 응한 우리학교 재학생들은 20대 남녀의 엇갈린 표심의 원인으로 젠더 갈등이 있던 사실엔 동의했다. 그러나 투표 시 제1기준이 젠더 이슈였다고 주장한 재학생은 절반 이하였다. 청년층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교묘한 책임 회피가 아닌 선거 결과의 올바른 진단과 진지한 성찰이다. 정치권은 이번 보궐선거가 주는 교훈을 본받아 다음 해 3월에 있을 대선에선 젠더 이슈와 더불어 부동산과 일자리 등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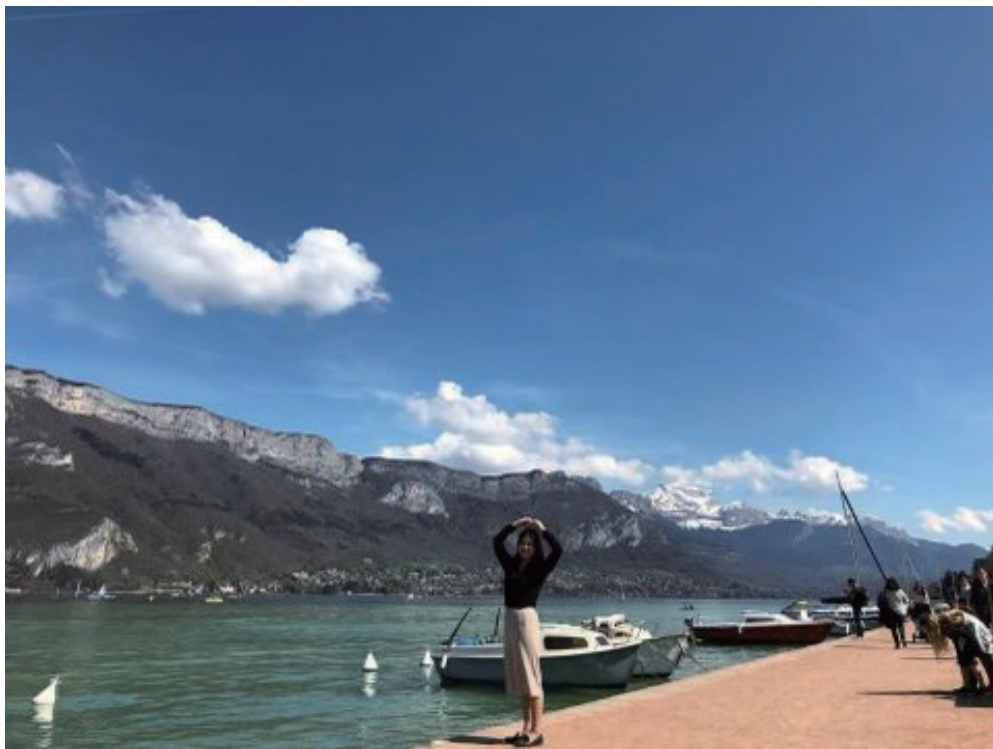


프랑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난 프랑스를 다녀온 선배들이 작성한 7+1 파견학생 귀국보고서를 토대로 유학원의 도움을 받아 출국 준비를 했다. 2019년 1월,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했던 1년간의 프랑스 여정이 시작됐다.

내가 생활한 도시는 프랑스 남동부에 있는 리옹이 있지만, 프랑스에 대한 내 첫인상은 공항이 있는 파리에서부터 시작됐다. 항상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던 파리의 모습을 실제로 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에펠탑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에펠탑을 바라보며 1년을 열정적으로 경험하고 느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다짐도 잠시, 파견 학생 첫 달 리옹카톨릭대학교(Université Catholique de Lyon) 어학원에서 치렀던 시험 점수가 저조해 학점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반에 배정받았다. '이 정도 실력이면 되겠지'란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난 큰 충격을 받았다.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담당 선생님과 프랑스 대학 총 책임자와도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우리나라로 귀국하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어 실



력이 많이 늘지 않았나 싶다. 이 일을 계기로 지금의 실력에 안주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 학원 수업이 끝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였다. 최대한 소수의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주로 외국인 친구와 교류했다. 'Soirée(쑤아레)'란 파티에 가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고 언어 교환 스터디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배움에 임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언어뿐만 아니라 프랑스 문화를 느끼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 격주로 근교 도시들을 돌아 다녔다. 이렇게 언어 실력을 끌어 올리려는 내 노력은 구체적인 결과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처음 Diplôme d'études en

langue française(이하 DELF) A2의 실력으로 프랑스에 왔던 나는 귀국 직전 DELF B2를 딸 정도로 프랑스어 실력이 향상됐다.

귀국하기 하루 전날엔 마지막으로 에펠탑을 보기 위해 개선문 전망대에 올라갔다. 그곳에서 1년간의 프랑스 생활을 되돌아봤다. 프랑스에 가기 전엔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몰라 방향했고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그 목표에 대해 막막함을 느꼈었다. 다양한 문화권의 외국인과의 소통하는 데에도 부담감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프랑스 생활로 난 삶의 기준점을 찾았다. 프랑스에서 얻은 것은

단순히 프랑스어 실력만이 아니다. 현재까지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생겼고 무엇이든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단 자신감을 얻었다. 또한 삶에 대해 방황하던 과거와 달리 도전하는 걸 즐기게 됐고 사소한 일상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됐다. 프랑스에서의 1년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며 겪게 될 많은 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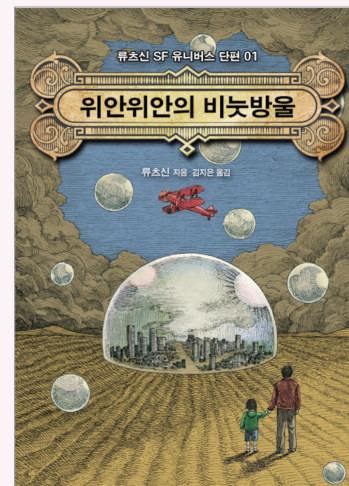
글 · 사진 김지현 (국제 · 프랑스어 17)



중국

<위안위안의 비눗방울>

-과학자가 가진 책임의 무게-



책 '위안위안의 비눗방울'의 저자 '류즈신'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2012년까지 전업 작가가 아닌 수력 발전소의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며 밤마다 소설을 썼다. 그는 1999년에 책 '초신성시대'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 8년 연속 중국의 대표 공상과학 문학상인 '은하상'을 수상했다. 이어 2015년엔 아시아 작가 최초로 휴고 최우수 장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의 책은 현대사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바탕으로 독자로 하여금 미래 사회의 사실적인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위안위안의 비눗방울은 작가의 상상력과 과학적 사실이 조화롭게 투영된 책이다. 주인공 '위안위안'이 살던 중국 서북부 도시는 사막화가 진행돼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메마른 도시다. 어릴 적부터 비눗방울을 좋아한 위안위안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비눗방울을 만들어 기네스북에 오른다. 이후 그는 부와 명예를 얻은 과학자가 된다. 아버지는 위안위안에게 사막화된 도시를 구해달라 부탁하지만 그는 본인의 만족을 위해 부탁을 거절하고 더 큰 비눗방울을 만드는 데 몰두한다. 그러자 아버지는 위안위안의 비눗방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비눗방울을 숨한 공기를 가져오는 매개체로 사용한다. 결국 이 비눗방울은 인공 강우를 만들어 사막화된 도시를 구한다.

과학 기술의 올바른 사용은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달렸다. 책에선 위안위안의 책임 부족을 보완하는 아버지란 존재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 사회에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은 오히려 그의 몫이다. 이에 사회적 책임이 부족한 과학자가 만든 기술은 환경을 파괴하는 등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된다. 작가는 우리에게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선택에 대해 묻는다. 독자가 이 책을 통해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 기술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생각해볼길 바란다.

김현익 기자 01hyunik@hufs.ac.kr

기록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의 어제와 오늘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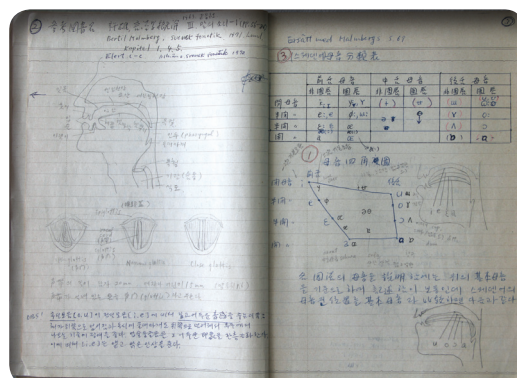
외대의 외국어 교육 환경 - 타자수를 아십니까?



▲1970년대의 시청각 수업 실습 장면



▲러시아어 타자기와 타자기로 제작한 1960년대의 노한사전



▲변광수 스칸디나비아어과 명예교수의 언어학 강의 노트

수 있었고, 교육 시설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내부 노력도 더해 우리학교는 시청각 장비비를 이용한 외국어 교육 부문에서도 우리나라 최첨단 대학이 될 수 있었다. 개교 직후인 1955년엔 문교부와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의 지원으로 △라디오△반향기 △와이어레코더△축음기△타이프 라이터△스테이프레코더 등의 기자재가 도입됐고, 1962년엔 △녹음 스튜디오△언어실습실 △조정실 등이 완비됐다. 1967년엔 언어실습실을 시청각교육연구실로 확장해 지속적으로 기자재와 외국어 학습부스를 증설했다. △동시통역 사운드스튜디오△러리어실습실△전용 영사실 등도 잇달아 설치됐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컬러 방송 시대에 접어들기 3년 전인 1977년엔 시청각교육원을 개편·설립해 △교육용 컬러 TV△녹화기 △음향 영사기△카메라 등 어학실습시설을 대폭 강화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도 했다. 그 결과 우리학교는 개교 30년이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 학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고 우리학교에 가면 국내외 출신을 망라한 우수한 교수진과 최첨단 기자재로 최고 수준의 외국어 교육을 받게 된단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1980년대엔 전 세계 원어방송을 외국어 교육에 활용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했다. 1994년 교내에 위성 안테나를 설치한 이래 1997년 글로벌캠퍼스의 영상음향도서관과 위성방송 자유시청실이 증설됐고, 1998년엔 전 세계 위성방송 수신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했다.

개교 직후 산구자적 심정으로 시작된 교수진과 타자수들의 힘겨운 노력이 씨앗이 돼, 첨단 기자재를 활용한 우리학교의 교육 방식은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을 선도해 왔다. 이런 전통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룰 새로운 외국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기록 및 사진 제공 : 역사관

커지는 사교육 시장, 언어 교육의 포용력 되돌아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은 청소년기 이후에도 다양한 사교육을 받고 있다. 그중 언어 분야의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하다. 특히 우리학교 학생들은 전공 언어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론 세분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이중전공생의 열악한 환경 등이 있다. △대학생 사교육 시장 과열의 현주소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이유△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 과열된 대학생 사교육 시장

대학생 사교육 시장은 점차 다양화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취업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서 국내 4년제 대학 3, 4학년과 이번 해 졸업 예정자 총 798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교육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최근 일 년 이내 취업 사교육을 받은 적 있다’고 답한 대학생이 31.6%에 달했다. 이들이 일 년 동안 취업 사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은 평균 218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공 분야 자격증 취득△영어성적 취득△컴퓨터 관련 학원 수강 및 자격증 취득이 각각 △37.6%△30.6%△28.9%였다.

성인 사교육 분야 중 대학생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분야는 언어다. 어학 교육 기업 ‘해커스’의 인터넷 강의 수강자는 300만 명 이상이다. 해커스어학원 종로 캠퍼스 관계자 A 씨는 “TOEIC(이하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영어 강의를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국어와 일본어가 뒤를 잇는다”고 밝혔다. 또한 해커스에 따르면 2019년 일본어 강의 매출은 전년 대비 943% 증가했다. 언어 사교육에 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 사교육 택하는 우리학교 학생들

우리학교 학생 역시 사교육 시장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언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전공 언어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만으로는 하나의 언어를 배우기 어렵단 입장이다. 우선 세분돼있지 않은 언어 교육 과정을 이유로 들었다. 우리학교 언어 전공 수업은 일반적으로 △초급△중급△고급 세 단계로 구성된다. 그러나 학생 개개인의 실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준을 3단계 정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겪는 학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스페인어를 전공하는 B 씨는 “‘초급스페인어문법’ 수업을

들다가 ‘중급스페인어읽기’로 넘어가자 수준 차이가 크게 느껴져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교육 난이도의 세분화를 위해 몇몇 전공 수업의 반을 수준별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는 역부족이란 의견도 있다. 가령 중국언어문화학부의 경우 4개의 1학년 수업 중 한 수업이 입문자 반이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잠깐이라도 중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다면 입문자반에 들어갈 수 없다. 이에 김채현(중국·중언문 20) 씨(이하 김 씨)는 “이미 잊어버린 고등학교 수업 하나만을 이유로 입문자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당황스럽다”며 “다른 수업엔 전공 언어에 이미 능숙한 학생이 많아 압박감을 느껴 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전공으로 언어 전공을 택한 학생들이 실력에 맞는 수업을 따로 제공받지 못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우리학교 △네덜란드어과△독일어과△스페인어과 등의 전공은 본전공생과 이중전공생·부전공생 수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독일어를 이중전공하고 있는 천지민(사회·미디어 19) 씨(이하 천 씨)는 “언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전공 언어에 익숙한 본전공생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게 부담스럽다”며 “다른 전공처럼 이중전공 수업을 따로 열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결국 천 씨는 본전공생 수준에 따라가기 위해 방학 동안 학원에 다녀야 했다. 또한 천 씨는 이중전공생과 본전공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구조는 수강신청에서부터 이중전공을 차별하는 구조라 주장했다. 현재 이중전공 수업이 열리지 않는 학과의 수강신청은 본전공생이 먼저 신청한 후 남은 자리를 이중전공생이 신청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천 씨는 “기초 언어 수업을 수강신청할 때 본전공생이 우선 신청하니 남은 자리가 단 한두 자리여서 신청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며 이중전공생을 위한 별개 수업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우리학교 대부분 언어 전공의 졸업요건

인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시험(이하 플렉스)으로 인해 사교육을 택하는 학생도 있다. 플렉스는 어학 국가 공인인증시험 중 하나로, 읽기 및 듣기 시험 점수의 만점이 1,000점이다. 대개의 언어학과에선 600점 이상의 플렉스 점수를 졸업요건으로 요구한다. 일본어과 등의 일부 학과에선 70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네덜란드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아랍어 등 대다수의 전공에선 플렉스 시험을 위한 수업을 제공한다. 그러나 플렉스 준비를 위한 수업이 없는 학과에 재학 중인 김혜빈(중국·중언문 17) 씨는 “학교 수업만으론 시험 준비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학원에 다닐 생각이다”며 “사교육 없이 플렉스 정도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토익 역시 일부 학과의 졸업요건이거나 취업 시 각종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준비하는 시험이다. 그러나 우리학교에선 1학년 과정의 대학외국어의 영어 수업만을 필수 교양으로 지정할 뿐 그 후엔 별개의 영어 수업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학교를 통한 지속적인 영어 학습이 어렵단 의견이 제기된다. 김 씨는 “우리학교에 영어 수업이 충분하지 못해 영어 실력을 키우려면 학원에 다닐 수밖에 없다”며 “영어 수업을 더 제공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포용적인 언어 교육을 위해선

학교 측은 학생들의 수업 수준 세분화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단 입장을 보였다. 우리학교 교육선진화센터 교직원 C 씨는 수업의 단계별 수준 격차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라고 밝혔다. C 씨는 “학교 측에서 △문법△작문△회화 등 수업을 표준화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어마다 학생의 실력이 천차만별이고 학과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모두를 만족시킬 방법

은 찾기 어렵단 입장이다.

또한 학교 측은 이중전공 수업을 따로 열거나 수강인원을 늘려달란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서 학생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 교직원 D 씨는 학생 수요가 수업 정원의 140%를 넘는 경우 분반을 하고 있으며 필수적인 기초 수업은 들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중전공생 전용 수업 개설에 대해서 “학과마다 상황이 달라 학교 측에서 일괄적으로 개설할 순 없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이러닝(e-Learning)’ 페이지에선 각종 어학 강좌를 비롯해 △한자학습△모의 토익·토플 시험△IT 기초 및 개발자 과정 등의 인터넷 강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방학에 토익 시험을 위해 학원에 다닌 지인선(사회·미디어 19) 씨는 “학교 토익 강의를 알았더라면 학원에 다니지 않고 학교 강의를 활용했을 것이다”며 “다른 어학 강의는 플렉스 시험공부에도 도움이 될 듯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은 홍보가 부족해 프로그램을 접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이에 천 씨는 “메일이나 학교 애플리케이션 공지 등을 통해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이경은(중국·중언문 19) 씨는 홈페이지에서 강의 링크를 찾기 쉽게 만들거나 배너를 직관적으로 바꾸면 좋겠다 의견을 표했다.

언어마다 학생 수준이 다르기에 모든 학생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명확한 언어 교육 방안을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학교가 학생의 언어 학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면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눈을 돌리는 상황은 줄어줄 수 있을 것이다.

임재영 기자 02korea@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1. 5. 3(월) ~ 5. 14(금)	2021. 6. 7(월) ~ 6. 18(금)
면접전형	2021. 5. 22(토) 10:00	2021. 6. 26(토) 10:00
합격자 발표	2021. 6. 4(금) 16:00 예정	2021. 7. 9(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1. 6. 7(월) ~ 11(금) 예정	2021. 7. 12(월) ~ 16(금) 예정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모 집 전 공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국어교육 •영어교육 •어린이영어교육 •스페인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유아교육 •상담심리 •독서논술교육 •혁신미래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8월 졸업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접수방법

· STEP1-인터넷 원서 작성 및 접수(유헤이어플라이Uwayapply.com))
· STEP2-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일부 전공의 경우 온라인(비대면)면접을 실시 할 수 있음. 불합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입 학 문 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문의 02-2173-2419)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e.hufs.ac.kr) 입학모집요강 및 입학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1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1학년도 후기 일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1.05.03(월) ~ 05.14(금)	2021.06.07(월) ~ 06.18(금)
고사장 발표	05.20(목) 15:00	06.23(수) 15:00
면접전형	05.22(토) 10:00 예정	06. 26(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06.03(목) 14:00	07.07(수) 14:00

• 위 전형계획 및 시행 일정은 정원 충족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학과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한국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점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8) 재직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중·고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2) TOP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초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한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심해지는 백신 양극화 현상, 불평등해져 가는 세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백신 확보가 각국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특정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는 백신이 부족한 상태다. 우리나라 역시 백신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다. 백신 수급의 불

평등은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초래하고 있다. △백신 양극화 현상의 실태△문제점△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백신 양극화 현상

현재 백신은 국가별로 불평등하게 분포돼있다. 미국 듀크글로벌보건혁신센터는 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 국가△중상위 소득 국가△중하위 소득 국가△하위 소득 국가를 분류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백신의 보유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고소득 국가 전체가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 물량은 47억 회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중상위 국가△중하위 국가△하위 국가가 확보한 백신 물량은 각각 △15억 회분△7억 3,100만 회분△7억 7,000만 회분에 그쳤다. 영국과 미국과 같은 고소득 국가는 인구수 2배에 이르는 백신을 확보했지만, 세계 인구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저소득 국가의 인구 대비 백신 확보량은 12%에 그쳤다.

가장 적극적으로 백신 물량 확보에 나선 곳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다. 미국은 이미 백신을 12억 회분 이상 확보했지만 13억 회분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인구 전체가 3회 이상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유럽연합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제조사 '화이자'와 단일 규모로 역대 최대인 18억 회분의 백신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백신의 면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3회차 접종인 '부스터 샷'을 위해 물량 확보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별 백신 접종률을 살펴보면 이런 추세가 뚜렷해진다. 지난달 27일 기준 백신 개발 회사를 자국에 두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국민은 각각 42.15%와 49.85%가 백신을 접종했다. 백신 접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은 62.31%의 접종률을 기록하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23.7%와 21%의 접종률을 보였다. 이들은 모두 세계 평균 접종률인 7.3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아프리카 대륙의 백신 접종률은 0.9%로 세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이는 하위 소득 국가가 백신 확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던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백신 확보 역시 평탄하진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만 명분과 화이자 백신 93만 명분을 보유 중이다. 이후 6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430만 명분과 화이자 275만 명분을 추가로 공급받을 예정이다. 이번 해 공급받기로 계약한 전체 물량은 7,900만 명분에 이른다. 결보기엔 충분해 보이나 문제는 공급 시점이다. 세계적으로 백신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백신 공급이 점점 늦춰지는 추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원래 상반기에 '모더나' 백신 2,000만 명분이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로 연기됐다. 현재 계약된 백신 물량도 언제 밀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 역시 5.05%로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 백신 격차로 인해 심화되는 불평등

세계적으로 백신이 불평등하게 공급된 요인엔 백신을 확보한 국가들의 자국 우선주의가 있다. 이미 국민 전체가 2회 접종하고도 남는 물량을 확보한 고소득 국가는 추가 접종을 위해 백신 수출을 제한하고 해외 백신 물량 확보에 힘쓰고 있다. 미국은 백신 관련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대

표적인 나라로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신의 원료와 장비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시키기로 했다. 이는 외국에 수출하는 백신 물량을 조절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는 백신이 꼭 필요한 국가의 확보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백신을 평등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다국적 공동체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이하 코백스)를 설립했다. △인도△우리나라△브라질 등의 코백스 참여국은 돈을 모아 제약회사와 백신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개발이 완료되면 동등하게 백신 공급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현재 선진국들이 시장에 백신 물량을 풀지 않아 코백스가 확보할 물량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코백스가 확보한 물량은 11억 200만 회분으로 고소득 국가의 47억 회분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결국 백신 확보 불평등은 국가별 사망자 수 격차를 야기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300만 명을 넘으면서 백신 접종 격차로 인한 고소득 국가와 하위 소득 국가의 사망자 수 격차도 커졌다. 백신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출처: 연합뉴스)

이 본격화된 후 미국은 이번 해 1월 하루 4,000명대에 달하던 사망자 수가 점차 줄어 최근 수백 명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 국가의 사망률은 여전히 높다. 인도와 브라질의 하루 사망자는 꾸준히 3,000명대다. 이는 전 세계 사망자 수의 절반에 다다르는 수치다.

또한 백신은 불평등한 경제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0.3%p 상승한 8.4%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3%p 상승한 6.4%로 예측했다. 두 고소득 국가는 광범위한 백신 보급을 통해 내수시장을 안정화하고 공격적인 부양정책으로 빠른 경기 회복을 이끌어냈다고 평가받는다.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멕시코△아르헨티나 등의 저소득 국가 경제성장률은 각각 △4.2%p△4.4%p△

5.9%p 하향 조정됐다. 이처럼 일부 국가들만의 경제 회복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등으로 돈이 몰리며 하위 소득 국가의 자본 유출이 빨라지고 달러 강세에 따른 하위 소득 국가의 부채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신 수급으로 인한 나라별 불평등의 정도가 심화되는 와중에 일부 국가에선 백신 여권 추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 도입하려는 백신 여권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던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여권에 기록하는 식으로 활용된다. 혹은 별도의 서류나 스마트폰 앱의 형태로도 사용될 수 있다. 백신 여권은 해외 입출국 시 백신을 맞은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술집, 극장 등의 출입 자격으로 활용되거나 국내에서 고용 조건으로도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영국 정부 산하의 인권기관은 백신 여권이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계급이 나뉘는 신 계층사회를 만들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백신은 법정 의무 백신이 아닌 데다, 현재 세계인구 모두가 일괄적으로 접종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 여부로 출입을 제한하거나 고용 조건으로 삼는 것은 인권법에 위배된다. 특히 이주민 등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집단이 고용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단 비판이 나온다.

◆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최근 국제사회에서 백신 불평등 현상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고소득 국가와 하위 소득 국가 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고소득 국가가 하위 소득 국가의 취약계층을 희생하며 코로나19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국의 젊은 층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질병 위험이 낮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까지 접종하는 나라는 타국의 △고령층 △보건 분야 종사자△취약계층의 백신 몫을 희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미국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인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만 회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이하 조 소장)은 현대 사회가 위험 공동체인 점을 항상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위험 공동체란 코로나19와 같이 근대 문명이 낳은 위험은 계급이나 빈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치명적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가령 고소득 국가가 아무리 백신을 선점해 집단면역을 형성하더라도 주변 하위 소득 국가의 코로나19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이 존재한다. 조 소장은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을 독점하면 이를 확보하지 못한 하위 소득 국가에서 상황이 악화돼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다"며 "고소득 국가에서 백신 관련 기술의 특허를 풀어 하위 소득 국가도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백신 불평등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세계 각국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정봉비 기자 02jbb@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사회 위안부 피해자 손해소 소송 각하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40개의 시민단체는 2차 소송 각하를 규탄하고 항소에 나서겠다 밝혔다.

경제 가상화폐 폭락

지난달 13일, 사상 처음 8,000만 원을 돌파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10일 만에 5,000만 원대로 떨어졌다. 가상화폐 폭락은 당분간 조정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 속에 △거래소 폐지 가능성△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증세 제안 제시△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위험성 경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분석이 있다.

정치 청와대 인사 개편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의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동시 단행했다.

국제 윤여정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지난달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배우 윤여정이 호명됐다. 윤여정은 영화 '미나리'로 한국인 첫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자이자 역대 두 번째 아시아 출신 여우조연상 수상자가 됐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전 세계로 번져가는 환경오염

지난달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폐쇄를 앞두고 방사성 오염수(이하 오염수) 방출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정화와 희석 과정을 거쳐 안전하단 입장이다. 그러나 △국제 환경 단체스우리나라스일본 내부에선 희석 과정을 거쳐도 오염 물질의 총량은 동일하다며 방출에 반

발했다. 이런 반대에도 일본 정부는 방출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 공학과 명예교수를 만나 일본 오염수 방출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Q1. 오염수 처리 방식엔 △전기분해를 통한 수소 방출△수증기 방출△지상 저장△지층 주입△지하 매설△해양 방출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오염수 처리 방식 중 환경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저장 용기에 오염수를 보관하는 지상 저장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상 저장 시엔 오염수 저장 용기를 확대할 수 있어요.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엔 약 1,000개의 저장 용기가 있는데 이를 3,000개로 늘리면 대규모 오염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민이 살지 못하는 구역에 250만 톤 규모의 친환경 저수지를 건설하는 방식도 있죠. 이는 오염수를 희석할 필요 없이 저장할 수 있고 오염수를 △공업용수△농업용수△음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다른 방식은 일본이 방출하려는 125만 톤 규모 오염수를 처리하기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현재로선 막대한 양의 오염수 처리엔 지상 저장방식이 최선이에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해양방출 외 다른 방식을 검토하지 않은 듯합니다.

Q1-1. 일본 정부가 국내외 반대의 목소리에도 해양 방출을 진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염수로 인한 자국 영토 오염을 태평양공해 오염으로 전가하기 위함이라 봅니다. 일본은 물 부족 국가예요. 일본 정부의 발표처럼 오염수가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면 바다에 버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Q2.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농도와 성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염수에 대해서도 정화 처리를 거쳐 안전하다고 할 뿐 구체적인 성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 거라 예상하나요?

오염수엔 △세슘△스트론튬△요오드△제논△삼중수소△중수소△크립톤△플루토늄 외에도 국내 원전에선 나오지 않는 200가지 이상의 △방사성△독극성△부식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을 거라 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선 핵연료와 원자료가 모두 녹고 파손됐기 때문이에요.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악인 단계로 정한 원전 5기에서 10기에 해당하는 7등급 사고입니다.

Q3. 오염수가 바다에 방출될 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오염수 방출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큼니다. 오염수가 방출되면 △갑각류△어류△해조류 등이 오염수의 세슘과 스트론튬 등에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해산물을 먹으면 체내 유전자가 손상 또는 변형되고 백내장과 백혈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Q4.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식은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입니다. 알프스가 무엇인가요? 타 원전에서 알프스를 사용한 사례가 있나요?

알프스는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의 약자로 일본이 자국 기

술로 만든 오염수 처리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핵시설 방사성 물질 제거에 사용된 적 있어요. 하지만 100만 톤 이상 규모의 오염수 처리에 사용하는 건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Q5. 일본 내부에선 알프스의 정화설비 일부가 최종 허가 없이 작동되거나 방사성 물질이 규제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있어 시설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알프스의 기술적 결함은 없나요?

알프스는 세슘과 스트론튬을 포함해 62가지 방사성 물질 제거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과장치△전기분해△합성수지의 효율성과 신뢰도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어요. 화학적 독극물이자 방사성 물질인 플루토늄도 제거한다고 하나 근거자료도 없는 상태입니다. 도쿄전력의 발표에 따르면 알프스의 1차 처리를 거쳤음에도 오염수엔 방사성 물질의 70% 이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Q6. 알프로 오염수를 처리하더라도 삼중수소를 제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삼중수소가 무엇인가요?

삼중수소는 수소의 방사성 동위원소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수소의 원자핵은 1개의 양성자로 구성되는데 삼중수소의 원자핵은 1개의 양성자와 2개의 중성자로 이뤄져요. 이때 삼중수소가 물 분자를 만나면 물의 분자 구조인 '수소-산소-수소'를 '수소-산소-삼중수소' 또는 '삼중수소-산소-삼중수소'로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삼중수소는 방사선을 방출해요. 이때 삼중수소가 대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면 해양뿐만 아니라 대기도 오염되는 거죠.

Q6-1. 삼중수소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불임이나 기형 등 여러 신체 이상이 유발됩니다. 삼중수소 원자핵은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많아 불안정해요. 그래서 중성자 1개가 양성자 1개로 바뀌며 전자가 1개 나오는 안정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나온 전자를 β선이라 하는데 β선은 음전하를 띠고 있어 DNA의 이중나선을 끊어버립니다. 이사슬은 끊어진 다른 사슬과 이어져 유전자 염기 배열을 흐뜨립니다. 즉 삼중수소로 인해 비정상 유전자가 계속 복제돼 신체 이상이 심화되는 거예요.

Q7. 현재 기술로 삼중수소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 전에 완성될 수 있는 개발 예정 기술은 없나요?

개발 예정 기술은 없으나 프랑스 기업인 베올리아(Vedea)사가 개발한 삼중수소 제거설비 'MDS(Modular Detritation System)'를 보완하면 삼중수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 제거를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은 듯합니다. 일본 정부의 말대로 100만 톤 규모의 오염수를 100배 희석한다 해도 삼중수소가 제거되진 않아요. 1억 톤의 오염수가 만들어질 뿐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환경 보호 의지를 갖고 기술을 개발해 삼중수소를 정화한 뒤 방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Q8.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삼중수소 연간 해양 방출량은 212조 베크렐*입니다. 2018년 기준 일본의 삼중수소 해양 방출량은 110조 베크렐로 우리나라의 약 절반 수준입니다. 일본의 삼중수소 방출량이 우리나라보다 적어 보이는데 일본의 오염수가 우리나라 오염수 방출보다 논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의 오염수엔 삼중수소 말고도 대량의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원전은 정상 운전 중 삼중수소만 냉각수에 섞여 조금씩 새어나오고 나머지 방사성 물질은 핵연료 안에 그대로 갇혀있습니다. 반면 일본 원전은 핵연료가 모두 녹아내려 삼중수소 외에도 200가지가 넘는 방사성 물질이 오염수에 들어있어요. 일본의 오염수엔 우리나라의 정상 원전 냉각수에 없는 방사성 물질이 있던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Q9.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출하면 어느 범위의 바다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방출 후 2년 반이면 오염수는 북아메리카 대륙 서해안까지 이릅니다. 적도를 따라 일본과 우리나라로 되돌아오는데도 5년이면 충분해요. 필리핀 쪽으로 내려가 중국해를 거쳐 대한해협을 지나는 경우엔 1년 후에 우리나라 해안까지 닿습니다. 만약 도중에 태풍이 불면 더 빠르게 우리나라 수역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어요.

Q9-1.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오염수 방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정화되나요?

원자핵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삼중수소△세슘△스트론튬△탄소14△플루토늄은 각각 △120년△300년△300년△5만6000년△24만년 이상 지나야 해요. 방사성 물질이 처음 양의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이 반감기의 10배 정도로 시간이 흐르면 초기량의 약 99.9%가 사라지게 정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Q10. 다른 원전에선 어떻게 방사성 오염수를 처리하고 있나요?

우크라이나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철근 콘크리트 석관에 보관했습니다. 미국의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에선 오염수 발생은 없었지만 방사성을 제거한 물질을 현장 보관했어요. 일본도 역내에 보관하는 국제 관행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은 없어요. 모든 나라가 한 마음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베크렐: 베크렐은 방사선 방출 능력을 나타내는 방사능의 국제단위다. 1조 베크렐이면 1초에 방사선이 1조 개 나온다.

정나윤 기자 02imyun@hufs.ac.kr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위한,
고객우선의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한일철강(주)

대표이사 회장 엄정헌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사치에서 가치로

고등학생 팬 사회 문제와 단절됐었다. 기숙사 생활로 주말에만 사용할 수 있던 와이파이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접하기 어려웠다. 종이 신문을 구독할 만큼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친구도 있었지만 내게 사회 문제는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았다. 2016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선일, 온 학교가 떠들썩했지만 난 크게 관심이 없었다. 2017년 수많은 시민이 분노하며 광화문 광장으로 나설 때도 난 학교에 남았다. 매일 아침 등굣길에 놓인 신문 1면을 보고 대강 파악한 흐름으로 그들의 분노 원인을 추측할 뿐 더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알리고 하지도 않았다. 수험생인 내게 분노는 사치라고 생각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리란 기대로 수험생활을 버텼지만 대학생이 된 난 예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여전히 바쁘게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할 뿐이었다. 그러던 2019년 겨울방학, 단조롭던 일상에 변곡점이 생겼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첫 선거권을 의미 있게 행사하기 위해 사회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겨울방학 거의 모든 시간을 △뉴스△라디오 △일간지와 함께했다. 기사를 매개로 사회에 눈을 떴고 더 나아가 직접 기사를 쓰고 싶어졌다.

대학 입학 이후 지난 두 달을 가장 바쁘게 보냈다. △기삿거리 탐색△취재△기사 작성△퇴고를 반복하다 보니 벌써 한 학기 절반이 지났으니 말이다. 뜻 깊은 시간이었지만 쉽지만은 않았다.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 담는 과정이 부담스러웠다.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기사를 읽을 불특정 다수와 취재원의 시간을 헛되지 않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걸 매주 신경 쓰다 보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지만 학보에 들어온 걸 후회하진 않는다.

이전과 가장 달라진 것은 그동안 내게만 집중하던 눈을 외부로 돌렸다는 것이다. 예전엔 오늘의 내 일정만을 생각했다면 지금은 학내 구성원들의 생활과 관심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세상을 기록하며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수많은 이들에 주목하게 됐다. 대학 입학 전 막연하게 꿈꾸던 가치 있는 삶에 다가가며 더 나은 사람이 되가고 있는 듯하다.

네 번의 마감을 했지만 내게 기자란 칭호가 아직 과분하다고 생각해 ‘우경주 기자’ 보단 ‘외대학보 소속 우경주’라고 소개하는 게 편하다. 무엇이 좋은 기사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 기사를 쓸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외대학보란 집단에 숨지 않고 나를 당당히 기자라고 소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우경주 기자

[책 ‘진리는 말하여질 수 없다’를 읽고 물에서 얻은 깨달음

책 ‘진리는 말하여질 수 없다’는 ‘도덕경’을 명료한 언어로 재구성했다.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의 철학자이며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의 도덕경은 시종일관 도덕을 얘기하며 독자로 하여금 깊은 사색에 빠지게 한다. 도덕경 제8장에선 물의 특성을 통해 배울 점을 제시한다. 제8장은 ‘상선약수(上善若水)’란 구절로 시작하는데, 이는 ‘최상의 덕은 물과 같다’는 뜻이다. 노자는 그 이유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공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물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물은 자기를 비우고 고집을 내세우지 않으며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흐르려 한다. 노자와 빈부 등 상하 구도 속 △갑질△막달△폭행이 난무한 세상에 도덕경은 많은 함의를 던져준다.

우리학교에 입학한 후 권위의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좋은 교수님을 만났다. 전공 학문의 최고 전문가이자 높은 사회적 권위를 가진 교수님이 학생을 자신과 동등하게 대하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나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단 생각이 들었고 이때 약한 것이 강한 것을, 부드러운 것이 억센 것을 이긴단 것을 체감했다. 작가 ‘헤르만 헤세’의 책 ‘싯다르타’에서도 도시를 떠난 싯다르타에게 뱃사공은 ‘물이 바위보다 더 강하고, 사랑이 폭력보다 더 강하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여러 곳에선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던

이유만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사람을 볼 수 있다. 몇몇 정치인은 ‘민중은 개돼지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과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국민주권△자유△정의△평등을 기본적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일하는 게 자신의 역할임을 망각한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 곳곳의 ‘갑질’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갑질의 피해자는 △공무원△부하 직원△콜센터 직원△택배기사 등으로 어디에나 편재해있다. 그러나 위계가 있는 곳에선 상사의 무례한 언행을 견디는 것이 사회생활이라며 당연시되기도 한다.

노자의 도덕경은 일종의 제왕학이다. 물의 △겸손△인내△융통성△포용력은 지도자가 본받아야 할 특성이기 때문이다. 통치자가 도덕경을 받아들여 물처럼 낮은 것을 마다하지 않는 너그러운 마음과 겸허한 자세를 지닐 때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에 역대 많은 통치자가 도덕경을 읽어왔고 물의 특성을 반영해 정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 모두가 물의 특성을 본받아 스스로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처럼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채영 기자 02korea@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다큐멘터리 ‘알고리즘의 편견’을 보고]

자동화된 차별 앞에 우리는 무력하다

우린 인공지능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구글△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소셜 미디어는 일상에 빠른 속도로 자리 잡았다. 인공지능은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했고 우린 이를 무방비하게 받아들였다. 이런 사회 인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은 사회 여러 분야를 대체했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시스템으로 각인됐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다큐멘터리 ‘알고리즘의 편견’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가진 불평등과 차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연구원 ‘조이’는 자신의 얼굴에 원하는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시종의 안면 인식 기술을 체험하던 중 그녀는 얼굴을 인식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알고리즘의 근본적인 데이터의 표본 대다수가 백인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은 흑인 여성인 조이의 얼굴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IBM과 같은 유명 인공지능 안면 인식 시스템 회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견된다.

알고리즘엔 수학적 구조가 내재해 있다. 이에 우린 인공지능이 차별적일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데이터엔 차별의식이 반영된 사례가 내재한다. 또한 고도화된 기술은 대부분 극소수의 동질적인 이들로부터 나온다. 그

들 집단의 동질성은 사회의 이면을 쉽게 볼 수 없게 한다. 결국 이들은 자신이 가진 편견을 의도치 않게 기술에 심는다. 즉 소수의 고정관념이 들어간 인공지능의 칼날은 사회적 약자에게 향할 수 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신규 직원을 채용해 왔다. 그러나 2018년 해당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서 여성 차별적 인식이 드러났다. 해당 인공지능이 ‘여성’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이력서의 점수를 감점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여자 대학을 나온 2명의 지원자 원서에도 불이익을 줬다. 시민들은 이 판단의 근거가 된 인공지능 데이터에 성차별적 회사 관행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기업은 해당 인공지능을 폐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이 인공지능 역량 검사 및 면접을 도입해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개발자조차 해당 알고리즘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지 알 수 없다. 만약 인공지능으로부터 차별을 받은 이는 그 누구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한다. 어떤 이는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넘어갈 수도 있다. 우린 차별 주체의 실체를 알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수 없다. 과연 당신은 인공지능으로부터 안전한가.

김민주 기자 01minju@hufs.ac.kr

1054호 학보를 읽고

멈춘 일상속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변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예전과 다른 모습의 일상을 보낸 지 한 해가 훌쩍 지나갔다. 활동이 한정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멈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변화하고 있다.

1054호에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변화를 알리는 기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이번 호에선 우리 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전 총학생회(이하 총학) ‘새벽으로부터’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이 공동 개최한 미안마 민주주의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실어 타국의 정치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소식을 전했다. 또한 해당 기사에선 미안마 민주화 시위 지지를 위한 전국 대학가 총학 SNS 캠페인을 언급하며 학생 참여 저조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SNS 캠페인에 대해선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아쉬웠다.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학생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를 맞이한 대학언론에 관한 기사도 있었다. 이 기사를 통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낯아진 지면 발간물 접근성과 학생들의 관심 저하에 대해 대학언론이 제시한 해결책을 살펴볼 수 있었다. 대학언론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확장하

고 메일링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 의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독자층 확대에 치중하는 것보다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알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생각이 든다. 물론 독자가 있어야 대학언론의 존재가 유의미하기에 독자층 확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그러나 대학언론이 진실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독자층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다.

사회면의 코로나19 이후 심해진 인종차별과 동양인 혐오 범죄에 관한 기사도 인상 깊었다. 미국 내 전체 혐오 범죄는 7% 감소한 데 비해 동양인 혐오 범죄는 149%나 증가했던 대목을 통해 현 상황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기저에 깔려있던 동양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코로나19가 기폭제가 돼 표출된 것이다. 하루빨리 이런 사태가 진정되고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선 전 세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의 기사에서도 설캠 총학 재선거, 서울시장 보궐 선거 등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일어난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세상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

김수정(영어·영문 19)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54호 학보를 읽고

소통 가능한 따뜻한 세상을 바라며

지속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우린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 외대 학보에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1054호에선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과 억압에 대항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눈에 띄었다. 미안마 군부 독재 청산을 위한 투쟁에 힘을 더한 우리학교를 다룬 기사가 인상 깊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전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미안마 민주주의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리학교 교수진은 미안마 민주주의 지지 성명서를 통해 미안마에 연대를 표했다. 우리학교 구성원이 미안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자랑스러웠다. 많은 사람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빠른 시일 내 미안마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릴길 바란다.

성소수자 인권을 다룬 기사 또한 인상적이었다. 최근 성소수자의 사회적 타살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우리 사회 속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기사에선 교내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 여부를 살폈으며 인권 보호 대책도 모색했다. 아직 완전히 못한 대책이지만 이를 발판 삼아 우리학교 모든

서은진(자연·수학 21)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학생이 차별 없이 인권을 보호받길 바란다.

사회면에선 동양인 혐오 범죄와 관련된 인종 차별에 관한 기사를 볼 수 있었다. 기사에선 인종 차별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하며 다양한 범죄로 드러난 실태를 다뤘다. 기존의 차별적 인식이 노골적인 범죄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많은 사람이 차별 반대 캠페인에 참여하며 현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해 국제 사회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심층면의 대학 언론을 주제로 한 기사도 돋보였다. 기사에선 대학 언론의 관심 감소 현상의 원인에 코로나19로 등교하는 학생 수의 감소를 꼽았다. 기사를 통해 대학언론이 온라인 기사 제공이나 메일링 서비스를 제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됐다. 외대학보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학내언론의 지위를 유지해나가길 바란다.

코로나19가 사라진 미래엔 모두가 따뜻해진 날처럼 따스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길 소망한다. 언택트(Untact)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이 꾸준히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세상이 됐으면 한다.



국 · 부장 고정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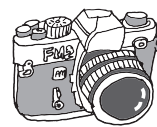
전환의 시대

지난해 우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란 불청객을 맞닥뜨렸다. 무방비한 상태에서 맞은 코로나19로 일상은 뒤흔들렸고 여전히 그 불청객은 자리를 털고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삶엔 일련의 변화가 초래됐다. 외출을 삼가게 되면서 배달 및 택배 이용량이 급증했고 이는 생활 쓰레기 증가로 이어졌다. 현재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오는 2025년 종료 예정이다. 애당초 2016년에 종료 예정이었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10년을 유예한 것이다. 유예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대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대체 매립지 공모는 나서는 지역이 없어 번번이 수포가 되고 있으며 재활용 자재 수출 길이 막혀 쓰레기는 쌓여가고 있다. 그 배경엔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필요한 물건이 문 앞에 도착하게 해주는 기술이 있다. 더불어 우린 날이 덥고 공기가 탁하면 주저 없이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가동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숨 쉬듯이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고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2017년 기준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1도가 상승했다. 이에 세계 곳곳에선 이상 기후 현상이 관측되며 각종 질병이 창궐하는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전 세계 197개국 이 파리협정에 가입해 평균 기온 상승의 상한선을 1.5도로 제한

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탄소배출 감소 계획을 제출했으나 민자 화력발전소 건설을 허용하며 어불성설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구에 인류가 발붙이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를 알면서도 비용 때문에 과거에 구축해놓은 기반 시설을 놓지 못한다면 후에 논의해야 할 것은 비용이 아닌 당장의 생존 가능성이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대대적인 에너지 자원 전환에 나설 의무가 있다. 이는 개인이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과 책임을 전적으로 정부에 전가해도 된단 의미가 아니다. 개인 또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 당장은 번거롭고 적지 않은 비용 지출이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감수한 작은 불편들은 큰 움직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친 우린 전환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김미정 기자 100kimmijung@hufs.ac.kr



사진으로 보는 코로나19 이전 우리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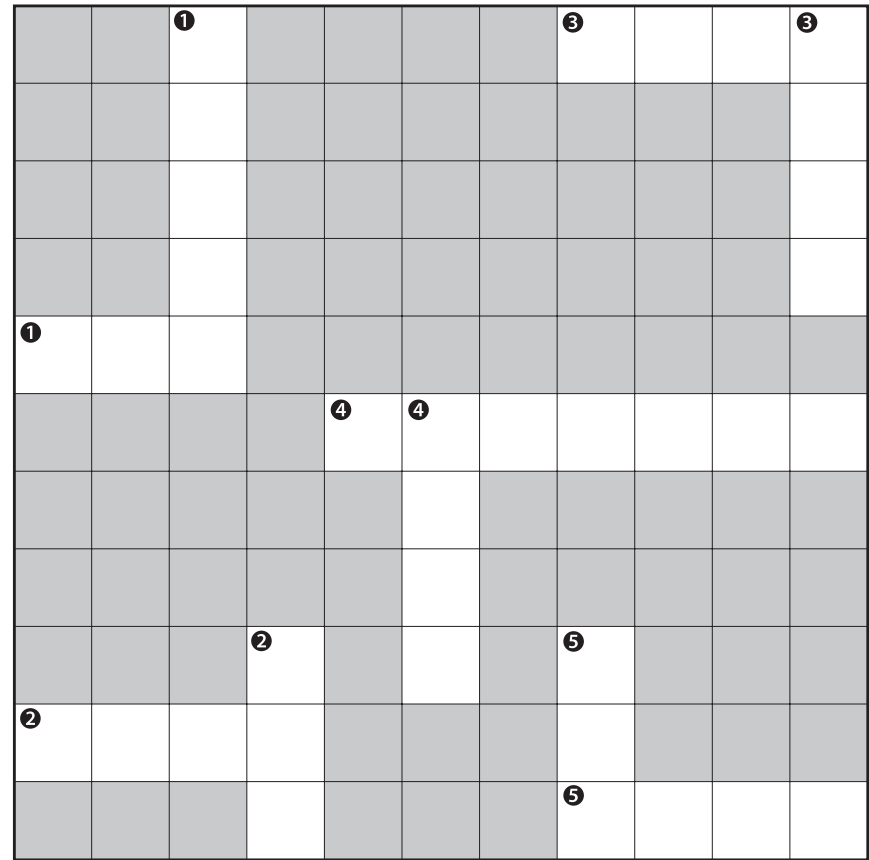


▲2017년 가을 연합문화제

2017년 가을 연합문화제에 우연히 찍은 사진입니다. 잔디광장에서 오순도순 무대 쪽을 바라보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학우님들이 보기 좋았던 기억이 남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종식돼 모두 캠퍼스 생활을 즐길 날이 올 수 있길 바라봅니다.

최현세(일본 · 통일지 17)

십자말풀이



- 가로**
1. 홈스쿨링의 개편은 교육 목표와 ○○○에 맞는 새로운 교육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됐다. (1면 참조)
 2. 글썽 기숙사 사생수칙 4항에 따르면 기숙사에서 난동 행위를 일으키거나 ○○○에 부적절한 사생에겐 퇴사 및 영구 입사 불가 조치가 취해진다. (3면 참조)
 3. 지난달 실시한 보결선거에서 성별에 따른 ○○○가 20% 포인트 이상 극명하게 나타나는 연령대는 전 연령 중 20대가 유일했다. (5면 참조)
 4. 현재 우리나라에선 ○○○○○○ 백신 100만 명분과 화이자 백신 93만 명분을 보유 중이다. (8면 참조)
 5. 다류멘터리 '알고리즘의 편견'은 ○○○○ 알고리즘이 가진 불평등과 차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10면 참조)

- 세로**
1. 일본연구소 ○○○○○은 일본 관련 연구에 종사하는 신진학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수여하는 학술상이다. (2면 참조)
 2. 생활폐기물은 배출량에 비해 ○○○되는 비율이 높지 않다. (4면 참조)
 3. 언어 전공을 ○○○으로 택한 학생들은 본전공생과 분리되지 않은 수업 환경을 비판하고 있다. (7면 참조)
 4. 알프스(ALPS)는 세슘과 ○○○○을 포함한 62가지 방사성 물질 제거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9면 참조)
 5. 김현우 앵커는 국민들이 관찰은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이 가져야 할 감각이라 생각한다. (12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이메일로 교환권을 드립니다.



ILO 핵심협약의 비준과 노동존중사회

지난달 20일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서에 대한 기탁식을 진행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2건과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1건이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고, ILO에 공식으로 통보된 것이다. 이로써 오랜 기간 노·사·정 갈등의 쟁점이 되었던 ILO 핵심협약 비준이 마무리된 것이다.

ILO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1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다. 현재 193개 UN 회원국 중 187개 국가가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옵저버 자격으로 ILO 총회에 참여했고, 1991년에 공식 가입하였다.

ILO는 국제적 노동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협약과 권고를 채택하는데, 현재까지 190개의 협약과 206개의 권고를 채택했다. ILO 회원국은 모든 협약을 비준할 의무를 갖지는 않는다. 반면에 ILO는 '1998년 근로자 기본권 선언'을 통해 4대 노동권을 지정하고, 이를 규정하는 8개 협약을 'ILO 핵심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고용·직업상의 차별 철폐가 4대 노동권이며, 각각 2개씩 총 8개의 핵심협약이 있다. 협약을 비준할 경우, 국내법에 대해 일정한 구속력을 갖는다. 오늘날 187개 회원국 중 8개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한 국가는 전체 회원국의 78%인 145개국에 이른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6개 회원국 중 31개국이 8대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2개를 비준한 미국 다음으로 가장 적은 4개만을 비준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기탁을 마친 협약은 국가보안법과 상충하는 105호를 제외한 29호(강제노동 금지), 87·98호(결사의 자유)이다. 국내 노동법은 노동자의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노조설립 및 참여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온 반면, ILO 협약은 노동자를 해고자와 실업자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본다. 또한 국내법은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ILO 핵심협약에 따르면 이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 병역의무 상 운영 중인 공익근무제도는 비군사적 성격의 업무에 대해 강제복무를 한다는 점에서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협약에 위배된단 점이 지적돼왔다.

그동안 협약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엔 경영계와 노동계 간에 합의도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관련 국내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했다. 이른바 노조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경영계는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여부, 노조 전임자에 급여지급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경영자 단체는 노조 3법의 개정이 경영계와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었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노동계는 노조 3법의 개정이 ILO 기본협약의 취지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생색내기용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흥미로운 점은 국내 노·사·정 간의 격렬한 논쟁에 있어 국외의 압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2018년 12월 유럽연합(EU)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노동조항을 근거로 우리나라 정부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내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2011년 발효된 한-EU FTA 제13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EU 회원국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EU 측의 주장은 우리나라 정부가 비준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형법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단 것이다. 이러한 마찰은 때마침 진행된 국내 이해당사자 간 논쟁에서 무게의 추를 비준 쪽으로 옮기는 외압으로 작용했다.

ILO 기본협약의 비준을 도출해 낸 것은 노동존중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현재 국가 간의 산업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더이상 노동비용을 통해 승부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끝났다.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SG) 혁신은 기업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의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며, 사회적 자원을 위한 공고한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며, 이번 ILO 핵심협약 비준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강유덕(LT학부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100hyunzi@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강유덕

편집장 이현지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지상파 평일 뉴스 최연소 남성 메인 앵커 김현우 SBS 앵커를 만나다

김현우(일본·일본어 98) 앵커(이하 김 앵커)는 2005년 SBS 입사 후 △경제부△사회부△스포츠부△정치부 기사를 거쳐 △‘모닝와이드’△‘국민의 선택’△‘주말 8시 뉴스’의 진행을 도맡았다. 이어 2017년부터 평일 8시 뉴스의 진행을 시작하며 ‘지상파 평일 뉴스 최연소 남성 메인 앵커’로 자리매김했다. 매일 저녁 뉴스에서 소신 있는 자세로 시청자를 마주하는 김 앵커를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일본어과에 진학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언어들이 재밌었죠. 그래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신기하고 부러웠어요. 어학을 배우고 싶단 생각에 우리학교 일본어과에 진학했습니다.

Q2. 언론인이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어릴 때 삼촌께서 기자로 일하시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기자란 막연한 꿈을 품고 있었죠. 군대를 전역한 후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재미를 느끼고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봤는데 기자가 떠오르더라고요. 미래에 이 일을 하고 싶다고 느껴서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Q2-1. 학창시절 언론인의 꿈에 다가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매일 아침 신문 두 개를 사서 읽었어요. 하나는 아침에 지하철로 통학하는 시간에 읽고 또 다른 하나는 오후에 도서관에서 읽었어요. 여러 사건에 대해 내 생각을 가다듬는 훈련을 한 거죠. 글을 많이 써보려고도 노력했습니다. 나중엔 친구들과 함께 스타디움 하며 기자 공개 채용 시험 준비를 했어요.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니 현직 언론인을 만나볼 일도 없었고 굉장히 막막했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언론인을 준비하는 친구를 만나면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Q3. SBS 입사 후 △경제부△사회부△스포츠부△정치부에 몸담았습니다. 이 중 가장 애정을 담아 일하셨던 부서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스포츠부에서 일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전 어릴 때부터 스포츠 경기와 뉴스를 매일 찾아볼 만큼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입사 후 3년 정도 다른 부서에서 일하던 중, 문득 스포츠 기사를 쫓을 때 해보지 않으면 훗날 후회할 것 같단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올림픽과 월드컵 현장에 가서 역사적인 순간

을 기록해보고 싶었고요. 그러나 스포츠 기자는 전문 영역이기에 입사 당시 스포츠 기자를 별개로 모집해 지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 부서로 보내 달라고 회사에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엔 굉장히 드문 일이었지만 회사에서 저를 흔쾌히 스포츠부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스포츠부에 가서 적은 연차엔 경험하기 어려운 해외 출장도 가고 현장 중계도 해봤어요. 이때 쌓았던 많은 방송 경험이 지금 앵커를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Q3-1. 우리학교에서 공부한 게 기자 생활에 도움이 됐나요?

제가 스포츠부에 있던 당시 일본 선수를 취재할 때 도움이 됐죠. 김연아 선수가 세계 최정상에 있던 때, 피겨빙상 취재를 나가면 아사다 마오, 안도 미키 등 일본 선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사용해 선수와 인터뷰를 하거나 선수 일정을 알아보거나 했습니다.

Q4. 기자란 직업이 가진 매력은 무엇인가요?

기자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선생님이고, 찾아가는 모든 현장이 교과서예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일이 기자가 취재해야 할 영역이잖아요. 어느 날 화재 현장에 취재를 나갔더니 집 구조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인 것을 발견했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땐 알 수 없죠. 이렇게 기자는 현장에 직접 나가 여러 사실을 알아가고 배웁니다. 만약 회사에서 “요즘 비트코인 사기가 많단니까 알아봐라”라고 하면 전 비트코인에 한 번도 투자해본 적이 없지만 이에 대해 공부해야 해요. 이렇게 매일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기자의 일이자 이 직업이 가진 매력이라 아닐까 합니다.

Q5. 16년 동안 보도했던 많은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참사 당일 저녁 제가 목격한 팽목항의 모습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경철관△소방관△지역주민△전국의 취재진이 작은 항구에 다 모여 있었지만 사람들의 웅성거림보다 유가족분들의 울음과 분노의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취재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기자의 일이지만 어린 자식을 잃고 오열하는 가족 앞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게 죄송했어요. 특히 오전에 전 원구조란 오보를 전한 언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고 반성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며칠 뒤 서울로 다시 올라왔는데도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아마 저와 비슷한 한 시기에 언론에 몸담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오래 기억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Q6. 매일 저녁 생방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매일 얇은 칼날 위에 올라서서 정답 없는 쪽지 시험을 보는 느낌이 들어요. 8시란 마감 시간 안에 최대한 정답에 가까운 답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민해야 할 단점이 가장 힘들죠. 뉴스는 한 방송사가 하루 동안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선배, 동료 기자들이 하루 또는 며칠간 고생해서 취재한 뉴스를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전하는 말이 SBS의 목소리가 될 수 있기에 ‘내가 이 단어를 써도 괜찮을까?’ 혹은 ‘시청자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요. 말 한마디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방송이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Q7. 언론인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혹은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야 할 단점입니다. 끊임없이 국민들이 괜찮은지 고민하는 게 언론인이 가져야 할 감각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연예△정치 분야의 권력자를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고 국민들은 편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해야 해요. 권력자가 힘을 멋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7-1. 어떻게 그 자질을 기를 수 있나요?

주식투자처럼 자신에게 꾸준히 투자해야 해요. ‘△하루△일주일△한 달 몇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내게 장기

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시민단체에서 활동해보거나 △신문과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것들을 해보며 자신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해야만 언론인의 감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학생 때 배우는 이론보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이 훗날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작고 사소한 경험들이 나중엔 인생의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고 여러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Q8. 언론인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어느덧 8시 뉴스 앵커자리에 앉은 지도 이번 해로 4년이 됐는데요. 심신이 지칠 때가 많아서 문득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이 일을 계속해도 괜찮을지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나중에도 현장이나 스튜디오에서 시청자와 소통하며 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Q8-1. 삶의 가치관이 있나요?

전 사회 구성원이 공동체를 조금이나마 좋은 방향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하면 이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에게 좀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의무 중 하나인 거죠. 제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옮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사회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Q9. 마지막으로 언론인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언론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미디어 환경이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며 너무 조금해하기보다 자신에게 좀 더 투자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노력하면 언젠가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임세은 기자 02seeun@hufs.ac.kr



세상의 상식을 그램하다
LG gram 16

